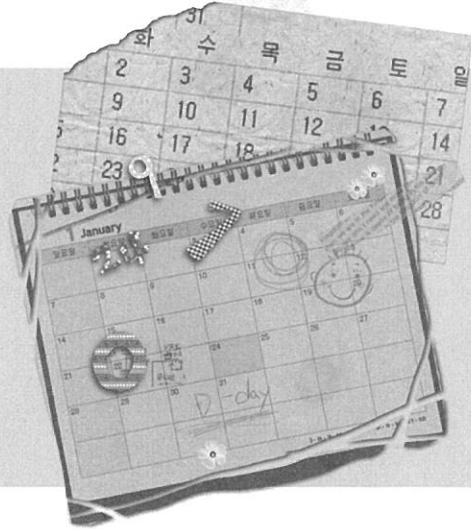


3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김태일, 최순호, 조용일, 박성민)



일반 사양관리

○ 난히도 추웠던 올해 겨울이 가고 얼음이 녹아 흐르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겨울철 내내 공공 얼어 사용하지 못했던 세족 시설을 포함하여 그동안 미뤄 두었던 젖소들의 사양관리 점검 및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3월의 기후예보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호흡기 질환은 기온이 낮아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밤과 낮 또는 안과 밖의 기온차에 의해 발생하므로 급격한 기온차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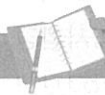
우선 목장에서 실천 가능한 주변환경 정리와 소독을 실시한다.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는 분변, 오줌, 사료 등의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떨어지므로 소독 전에 청소를 하여 청결한 상태에서 소독을 하여야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운동장 사정을 고려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사의 환기와 채광은 가축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농가의 소득원이 되는 우유를 매일 매일 생산하는 착유우에게는 더욱 그렇다. 환기는 우사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 주고, 악취를 제거하며 습도를 조절해 주어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주며 채광은 가축의 피부에 대한 살균효과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의 합성을 돕는다.



일반 사양관리

사 양관리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번식효율 개선 및 우유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다. 우선 번식 후보축은 적정 BCS(신체충실지수) 유지를 위한 영양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 계획적인 번식관리를 하도록 한다. 착유우에 대해서는 부존사료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유단계별 적정 영양공급을 해 주고 면역기능 강화 비타민, 생균제 등을 급여한다. 또한 분만예정우에게 착유사료를 미리 급여하는 유도사양은 과도한 유선 자극으로 인해 산유능력이 개량된 고능력우의 유방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건유사료를 급여하되 분만이 임박할수록 단계적으로 배합사료를 증량급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최적 영양관리에 의한 적기 성 성숙으로 초산월령이 24~25개월령이 되도록 하는데 후보축은 당장 농가의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착유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추위 등 소화기관과 골격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하는데, 배합사료는 제한급여하고 건초 등 양질의 조사료를 자유급여토록 한다. 특히 물은 젖소가 원할 때 항상 섭취가 가능토록 해 주고, 사료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착유우의 경우 정기적으로 유업체에서 받는 자료를 통해 간단한 계산만으로 얻을 수 있는 P/F 비를 이용하여 간이 영양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산유량을 높이기 위해 농후사료 급여량을 지나치게 증량하면 조농비 불균형으로 인해 산독증에 걸릴 수 있고 이는 발굽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한 착유중인 소는 변화에 민감하므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바꿀 때에는 반추위내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에 걸쳐 배합사료 기준 하루 300g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올 해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백신접종과 방역을 철저히 해야겠다. 최근 일부에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들이 적발되는 등 구제역 예방접종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접종 농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제역 백신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농장 출입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송아지는 2개월령에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4주후 2차 접종을 실시하여야하며,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은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며,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거래내역, 출입자, 출입차량, 및 소독실시 사항 등은 방역 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해야겠다. 날씨의 변화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 송아지들의 설사와 호흡기 질환 등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 어린 송아지의 경우 찬공기가 바로 송아지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낮에는 외부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발생이 높으므로 환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신생 송아지는 면역증진 및 영양공급을 위해 가능한 분만 직후 신속하게 (6시간 이내) 초유를 급여하고 보온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따뜻하게 보온을 해준다. ☺